

# 광주·전남 곳곳이 드라마 '주요 배경'

목포·화순·영암·신안 등서  
SBS 내년 드라마 '사마귀' 촬영  
화순 탄광사택서 기자 취재선  
예술의전당 대극장도 스튜디오 활용



수월의 옛집으로 활용된 '신안 추포 집'에서 '사마귀' 아역 배우가 연기하는 장면.



주요 로케이션 중 하나로 활용된 '화순 탄광사택'에서 촬영하는 모습.

〈사마귀 제작팀 제공〉

연에 참여했던 소프라노 민수연, 바리톤 박정민 등 150여 명의 출연진이 함께했다. 드라마 속 극중극 씬에 아리아를 부르는 장면, 백스테이지에서 펼쳐지는 긴박한 내용 등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촬영팀은 최근 성료한 광주시립오페라단 '토스카' 주역 및 2막 '스카르피아 집무실' 세트틀 드라마 제작에 사용했으며 오페라단의 '별은 빛나건만',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등 주요 아리아를 BGM으로 불렀다. 이 외에도 광주예술의전당 분장실 및 무대 입구, 공연장 로비와 객석, 나선형 계단 및 통로, 주차장 등도 로케이션으로 쓰였다.

한편 조선대 K컬처학과 학생들도 보조 역할을 맡아 드라마 촬영을 경험했다. 이들은 드라마 속 극중극인 '연극 씬' 중에서도 인터미션 대목에 등장하는 관객 역할을 맡았다. 양은재 학생 대표는 "작은 엑스트라 역할이지만 공연, 기획을 전공하는 지역 대학생들이 드라마 촬영에 동참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광주, 전남의 다양한 문화예술 인프라 및 공간들이 영화, 드라마 촬영지로 주목받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광주향교, 유교문화특구로 지정해야”

광주향교 민주시민 월례 강좌...성균관 김평호 고문 강연

광주향교를 유교문화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성균관 김평호 고문은 지난 21일 유림 및 시민을 대상으로 '향교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광주향교(전교 기호석)는 최근 '제4회 장의단 및 유림 민주시민 월례 교양강좌'를 열어 참석자

들과 유림정신 강화와 향교 발전 비전 등을 공유했다. 김 고문은 이날 강연에서 "광주향교를 유교문화특구로 지정하고 문화상품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 제시로 관심을 끌었다. 특히 "향교의 연혁과 수난사를 모티브로 광주향교가 유교문화의 의미있는 중심지로 자리매김되

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에 참석한 장의들은 향교 운영과 유림 지도자 역할을 점검하는 등 향교 발전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기호석 전교는 "장의단은 유림의 중심으로서 향교를 견인하는 역할을 도모해야 한다"며 "유교 전통의 현대적 계승은 물론 다양한 교육을 매개로 유림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향교는 내달 장의단 활동 평가 및 우수 장의 표창 및 우수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가무악희의 아름다움 어디에 있을까

전남도립국악단 정기공연...30일 무안 남도소리올림픽 공연장



전남도립국악단이 공연을 펼치는 모습.

〈전남도립국악단 제공〉

우리 전통 가무악희의 근원적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을까. 한국 춤의 원류를 담은 레퍼토리는 물론, 이를 동시대적 관점으로 해석한 컨템퍼러리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가무악희의 '원초적 미학'을 발견하는 공연이 관객들을 찾아온다. 전남도립국악단(예술감독 조용안·국악단)이 정기공연 '本: 가치를 탐하다'를 오는 30일 오후 4시 전남 무안 남도소리올림픽 공연장에서 펼친다. 우리 고유의 민속음악과 그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국악단이 탐구해 온 결과물을 가무악희 형태로 선보이는 자리다. 원형 마당에서 이뤄지던 풍물판을 새로운 진법으로 구성한 컨템퍼러리 '판'으로 막을 올린다. 이어 정갈만이 안무한 무용극 '화려한 아침의 나라'는 승무와 살풀이, 동래학춤과 부채춤 등을 융합시킨 작품이다. 창작 창극 '봉황이 나르샤'는 한탄 타령으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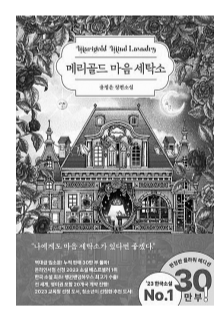
불리는 남도 민요 '흥 타령'의 가사를 극화했다. 왜란으로 이별했던 봉이와 황이 두 사람의 애틋한 사랑담을 녹여 내 비장미가 돋보인다. 아울러 국악 관현악 '경민요 태평가 주제에 의한 여여'는 리듬의 변주를 통한 힘찬 기상을 선사하는 가락이 주를 이룬다. 이 외에도 최희열이 편곡한 '남원산성·성주풀이·진도아리랑' 등이 울려 퍼진다. 동국대 한국음악과 박찬희 교수가 특별 지휘자로 참여하며 사물놀이패 사물광대는 박범훈 국 '신모듬 3악장'을 협연할 예정이다. 조용안 예술감독은 "우리 민속음악에서 전통 가무악희의 본질과 같은 '패턴', '선율' 등 요소를 발견하기 위해 부단히 고민해 왔다"며 "국악단이 찾아낸 우리 예술의 고유한 가치를 관객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했다. 일반석 1만원, 티켓링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 독후감 함께 나눠요

전남대 도서관 '올해의 한 책'...다음달 3일까지 독서 후기 공모

누구나 후회를 하며 인생을 산다. 지나온 시절이 아름다울 때도 있지만 지워버리고 싶을 때도 있다. 할 수만 있다면 후회의 시간을 버리고 싶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법이다. 전남대 도서관이 '올해의 한 책'으로 선정된 윤정은 작가의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북로망스) 독서 후기를 공모한다. 소설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마음 속 이야기를 세탁소 여자가 들어준다는 내용이다. 세탁소 여자는 매일 찾아와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차를 끓인다. 공모전은 대학 구성원 외에도 광주전남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희망자는 전남대 도서

관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후기를 작성해 12월 3일까지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박소담 주무관은 이번 독서 후기 공모전은 "작품을 읽고 느낀 점이나 감동 등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기획됐다"며 "책과 독서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의 한 책'은 광주전남 지역민의 독서 문화 향상을 위해 전남대가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해온 프로그램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